

교차로



천태종 제13대 중앙청년회장 이문수 씨

“대중과 호흡하는 청년회로서 내부조직 강화와 대외적 불법포교에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오는 5일 천태종 청년회 제13대 중앙청년회장에 취임한 이문수 회장은 청년 불자들의 화합과 단결만이 새시대 불교를 이끄는 원동력임을 강조한다.

79년 성홍사에 다니면서부터 15년 동안 꾸준히 수행활동을 해온 이회장은 신중불교에서 벗어나 대중과 함께하는 도심불교의 지속적 포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할 방침이다.

“대외 포교활동에 주력”

대중불교를 통한 환경보호운동, 생활불교를 통한 효행심 고취, 대도시 포교사업 적극추진, 청년불자의 인성교육과 불성교육 등이 이회장이 재임기간 동안 펼칠 사업.

발전된 종단의 위상에 맞추어 대외적인 활동에 힘을 기울여야 한다는 이회장은 “내적인 활동과 대외적 활동이 균형을 이룰때만이 비로소 불교의 진정한 발전이 있을 수 있다”며 적극적인 사회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문수 회장은 광복 5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애국불교에 바탕을 둔 올바른 민족사관 확립 및 불성 양성에 전력할 계획이다. (우)

전 원장·의장 초청 간담회

설정스님(조계종 중앙종회의장)은 지난달 23일 한국의 집에서 조계종 전 총무원장인 혜정·초우스님, 전 종회의장 원서 종하 정대스님등을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자리에는 종회의원들인 정우 일면 종원 장운 명진스님 등이 참석했다.

골프장 종사자에 법문

정관스님(범어사 주지)은 지난달 14일 동국컨트리클럽장당에서 골프장종사자와 경기보조원 1백여명을 대상으로 “세계화에 따른 불교인의 역할”이란 제목의 강연을 했다.

불교신문사 부사장에

지흥스님(설악산 신승사 주지)은 지난 20일자로 불교신문사 부사장에 임명되어 근무에 들어갔다.

교육원 역경위원장에

법성스님(대승원 원장)이 지난달 19일 개최된 조계종 교육원 산하 역경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공개협 신년교례회 참석



각현스님(사단법인 연꽃마을재단 이사장)과 안동일변호사(제가연합상임의장)는 지난 21일 올림픽트라이에서 열린 공개협 신년교례회(공개협) 신년교례회 및 95년 책갈피대회에 참석했다.

‘보살의 원력’ 주제로 법문

영조스님(종심사 주지)은 21일 관주능인회관에서 능인불교회초청법회에 참석, ‘보살의 원력’이란 주제의 법문을 했다.

춘천시민위환 법문

한정섭법사(사단법인 한국불교교화원 이사장)는 지난달 19일 춘천 강원예식장에서 춘천불교청년회와 맑고 향기롭게 춘천모임을 공동으로 개최한 신년맞이 춘천시민을 위한 불교교리 대강좌에서 “불법을 통해 보람된 삶” 주제로 설법했다.

강원도민회 신년하례참석

정재철의원(강원도민회 회장)은 지난달 28일 오후 6시30분 라마다 올림피아호텔에서 강원도민회 신년하례회 및 한승수 대통령비서실장 취임축하회를 가졌다.

취임축하법회 참석

박일용경총장은 지난달 26일



불교복지단체장 신년하례

조계종 총무원 문화사회(부장 시현) 초청 복지단체장 신년하례 및 복지단체장들은 서로의 유대를 강화하고 내실을 기하기 위해 모임을 계속 갖기로 결의, 다음 모임을 위한 준비위원회를 구성했다.



역대 군승단장 초청 신년 하례법회

육·해·공군 군승단(단장 강남)이 주최한 ‘역대 군승단장 초청 신년하례법회’가 지난 달 20일 호국원장사 백상홀에서 열렸다.

KBS ‘국악하마당’ 출연

안숙선씨(국악인)는 지난달 20일 KBS ‘국악 하마당’에 출연해 제자

경향신문 경승실

법당에서 열린 취임축하 및 경향가족을 위한 기원법회에 참석 축하를 했다.

동시집 ‘독도에’ 펴내

신현숙씨(불교아동문학가)는 최근 제10 동시집 ‘독도에 나무심기’를 도서출판 미래에서 펴냈다.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동국대 불교대학원 총동창회 회장 이·취임식 및 신년하례식이 지난 달 23일 타워호텔 필로바움에서 열렸다. 이날 모임에는 제2대 회장



전국고찰순례 설법들어

가족동참·교리 배우며 법우애 꽃피워

가족동참·교리 배우며 법우애 꽃피워

“직장의 특성상 회사내에서의 어떤 활동보다는 정기법회와 생활법문, 봉사활동을 하면서 불교를 배우고 실천하고자 했습니다”라고 말하는 법우회 총무 송진효씨는 아직 부족함이 많지만 참불교를 배우고 실천하려는 다부진 회원들이 있기에 언제나 새로운 다짐으로 생활활동을 해오고 있다고 한다.

법우회

10대의 포스트와 삼면에 설치된 대형 전자 게시판에 순간순간마다 증시현황이 슬기롭게 돌아가고 있는 곳. 한국증권거래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참불자의 숨결을 느낄 수 있다.

90년 9월 창단된 한국증권거래소 법우회(회장 이광수)는 부처님의 법을 배우고 익혀 청정한 마음을 닦으며 개인과 직장발전에 기여해 왔다.

한국증권거래소내 20여개 사내모임의 하나인 법우회는 총무와 임무와 과제와 홍보와 채권과 매매와 상장과 등 전부서 곳곳에 회원들이 고루 분포되어 있다.

법우회는 불교에 대해 호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삼보가 무엇인지 합장은 왜 하는 것인지조차 모르는 초심자 회원들을 위해 불교입문서를 함께 읽고 공부도 한다.

지난해에는 신복사, 수덕사, 용문사, 보문사 등의 고찰을 찾아 큰 스님의 설법을 들으며 불교에 대한 이해의 폭을 한층 넓히기도 했다.

이와함께 매달 3계주 수요일이면 여의도 대한불교포교원(주지 현근)에서 법우회 회원과 가족들이 함께 법회를 진행하면서 바쁜생활 틈틈이 신명의 뒷바라지를 구우어 왔다.

'95 불교계 새별



“만화 화엄경” 작가 조성연 씨

본격적인 장편 불교만화인 《만화 화엄경》 제4권을 내놓으면서 아직 중무지인 불교만화의 새영역을 앞장서 개척하고 있는 불교만화가 조성연씨(38).

“만화가로 살아가려면 항상 동심을 잃지 않아야 합니다. 더구나 불교만화가라면 선재동자처럼 순수하고 열정이 있는 동심을 지녀야 세상의 참모습을 볼 수 있고 편견없이 경전의 세계를 영성화할 수 있기 때

료수집, 주제설정, 각색의 어려움 등을 겪은 끝에 3년여만에 『입법계품(入法界品)』의 선재동자 구도기와 《만화 성철 큰스님》을 선보이게 됐다.

“처음 《만화 성철 큰스님》을 내놓았을 때에도 아이들만 보는 만화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했었습니다. 막상 만화를 보신 분들을 조사해 보니, 청소년부터 나이 많은 노인까지 연령층이 고르게 나타나

고, 불교만화가의 양성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전의 대중화·현대화에 방향을 설정한 만큼 무한한 상상력을 일깨워 줄 수 있는 화성성, 스토리 전개, 전달의 다양성 등 만화의 긍정적인 면을 최대한 살리면서, 앞으로도 아합·방송·화면·반야·열반·법화 등 경전에서 꼭 전해야 할 내용을 흥미로우면서도 쉽게 일반인들에게 전

불교만화의 새 영역개척 ... 영화도 계획

문이지요.”

조씨는 신심있는 불교신자로서 영어·논리학 등의 참고서 만화를 15년간 그려오다가, 89년도에 불교만화사 사장이던 임기준법사를 만나면서부터 불교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 불교만화 보급에 정열을 쏟기 시작했다.

89년도에 ‘성철스님의 일대기’와 《화엄경》의 만화화를 기획한 후 자

타나 만화로 다양한 연령층에 문서 포교를 전개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조씨는 만화는 아이들이나 보고, 내용도 지극하다는 만화에 대한 편견이 불교만화의 성장을 저해시키는 한 요인이라며, “불교만화의 체계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전문 스토리작가와 만화가에게 글과 그림을 분담시키는 것이 더욱 필요하

해질 수 있도록 정진행을 멈추지 않겠습니다.”라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는 조씨는 “가장 친근한 문서포교의 방법으로서 불교만화는 가르침의 씨앗을 받아 키워야 할 어린이나 청소년들에게 더욱 필요하다”고 말한다. 조씨는 어린이 조성연씨 불교만화사·불교TV와 함께 《화엄경》의 만화영화화 작업도 추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김재경 기자)

21세기를 • 이끌어갈 • 선재를 • 찾습니다

1995학년도 법사원 불교대학 신입생 모집

대학(불교과)통신과정 대학원(법사원)적강 및 통신과정

국내최초 영상비디오 통신강좌 실시!!

법사원 불교대학 각 과정 2년제

- 교계 정예포교 지도자 양성목적으로 설립함.
- 대중불교운동과 포교능력배양을 위한 최고의 교과과정과 강사진.
- 저렴한 학비로 信·解·行과 복덕이 원만한 지도자 배양.

1. 모집인원: 불교과 통신과정 ○○명, 법사원 적강 ○○명, 통신과정 ○○명
연구원: 96년 개설예정
2. 입학자격: 불교과/고졸이상의 학력자·법사원/불교대학 2년 졸업자 이상
3. 원서교부 및 접수기간: 1995년 1월 1일부터 2월 20일 18:00까지
4. 전형방법: 서류전형(합격자 개별통지)
5. 면 점: 법사원 지원자는 2월 26일 면접(오전 10시부터)
6. 제출서류:
 - 1) 입학원서 1통(본대학 소정양식)
 - 2) 주민등록등본 1통
 - 3) 최종학력증명 1통
 - 4) 반명함사진 3매

● 특 점 ●

- 1) 불교과 졸업 후 법사고시 합격자에 한해 법사증 수여, 법사과에 입학 자격.
- 2) 각종 장학제도 마련하여 성적이 우수한 자는 장학금을 지급함.
- 3) 법사원 졸업자는 법제고시를 보며 합격자는 법제종수함.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본대학 교육부에 문의 바람.

교육과정 및 과목·강사

대학(불교과)은 통신과정으로 녹음테이프와 교과서를 공부하며 대학원(법사원)은 출석수강 및 통신과정이 있으며 통신과정은 국내 최초로 비디오 테이프로 지역론에서 공부하게 됨.

서울, 경기 지역은 본교에서 따로 공부함.

	1 학 기	2 학 기
1 학년	불 타 의 생애 (목정배) 종 교 학 (김형배) 인도문화(철학) (신성현) 불 교 개 론 (해주스님)	불 전 개 설 (목정배) 인 도 불 교 사 (전재성) 종 교 사 회 학 (이동준) 중 국 문 화 (철학) (고재욱)
2 학년	원 시 불 교 개 설 (조용길) 대 승 불 교 개 설 (권기중) 불 교 와 사 회 (박경준)	중 국 불 교 사 (차차석) 불 교 계 율 사 상 (목정배) 불 교 포 교 학 (김효성) 한 국 불 교 사 상 개 설 (목정배) 대 승 불 교 보살 사 상 (계한스님)

	1-2 학 기
1 학년	아 합 경 (목정배) 법 구 경 목요논강 천 수 경 (김효성) 불교의식-이론과 실기 (운곡스님)
2 학년	구 사 론 법 화 경 금 강 경

전공과목 선택		
열	반	경
기	신	론
화	엄	경
중	원	론
원	각	경
천	태	학

법사원·불교대학 학장 철학박사 목정배

사단법인 대한불교 법사회(부설)

서울 중구 정충동 2가 188-6 뉴정충빌딩 5층
전화(02)266-1827, 264-1827, 팩스(02)266-1827

지방분교 및 문의처

부산분교: (051)818-0575 어린이불교문화원 / 울산분교: (052)65-2727 울산불교문화원 / 고양분교: (02)381-1234 성보사포교원 / 여수분교: (062)651-4658 정회원 법사 / 원주분교: (0371)47-0617 불심사 / 김해분교: (0525)34-8807 조유식 법사 / 포항분교: (0562)44-7597 이인식 법사 / 대구분교: (053)941-0311, 954-7395 권순경 거사 / 인천분교: (0336)635-3748 심의대 법사 / 안산·시흥분교: (0345)498-7700-2 현법스님 / 한국스카우트 불교지도자회 735-8165 최광 김해원 법사·사무국장 최종규 법사 / 청주분교: (0431)271-8244 김용우 법사 / 경주분교: (0561)749-2395 박효봉 거사 / 제주분교: (064)22-5027 현자생 법사 / 안양불교문화원 (0343)72-7577 신숙희 법사 / 강화군: (0349)937-3272 공도식 법사